

서울 청룡유치원 '반야심경' 독경대회 및 사경공부 현장



반야심경 암송대회를 앞두고 4~5세반 어린이들이 합창을 하고 삼귀의를 하고 있다.

“치카치카 보다 상쾌해요”

“마하바나라마미따시경 과자재보살 해신 바나 액……어... 어... 뭐지? 군주무새? 시대 신주시대명주시무상주시무드드주”

12월 21일 서울 종로구 송인동 청룡유치원 (원장 정명) 원생들이 유치원 강당 단상에 올라 고사리 손으로 목탁을 움켜쥐고 <반야심경>을 외운다. 아직 반침 발음까지 하기는 어려운지 아이들의 발음이 째다.

서울 종로구 청룡사 부설 청룡유치원 제6회 <반야심경> 암송대회가 한창이었다. 4세 어린이들은 진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만 하고 들어간다. 육스러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다가도 정명 스님이 "크게~. 그렇지, 잘 한다"라고 외쳐자 범당이 떠날 듯 다시 큰 소리로 암송을 시작한다. 7세 어린이들은

목탁에 맞춰 <반야심경>을 또박또박 암송한다. 자세도 반듯하고, 헛갈려하지도 않는다.

친구를 격려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친구 암송차례가 되면 "○○야 잘해~"라며 격려하면, 원생들이 다같이 "○○야 잘해~"라며 합창을 한다. 대상부터 금상·은상·동상까지 있는 상이라 경쟁할 만도 한데 서로 격려해주는 즐거움이 더 커보였다.

암송대회가 있던 날 아침 청룡유치원에는 다양한 풍경이 펼쳐졌다. 지각한 4살배기 아들에게 시현이 어머니는 "시현아 오늘 <반야심경> 잘 하고 와~"라며 들여보냈다. 연꽃반 시현이는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함께 목탁을 치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구절을 연습한다. 같은반 친구들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목탁을 쥐고 <반야심경>을 독송한다. 암송대회를 위해 강당에 모인 원생들은 한 명이 무심결에 <반야심경> 한 구절을 외면다. 따라서 암송을 했다. 마치 초등학교에서 구구단을 외거나 만화가를 부르면 주위 친구들이 따라 부르는 모양새다. 정명 스님은 암기력, 태도, 발음을 기준으로 점수를 냈다.

"대상은 세! 정! 민!"

"와~ 정민아 정말 축하해."

친구의 우승을 아낌없이 축하하며 강당을 함께 뒹군다. 월드컵에서 골을 넣고 전 국민이 함께 기뻐하듯, 정명 스님은 "아이들이 친구의 기쁨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고 설명했다.

원장이자 7세반 담임인 스님은 아이들에게

<유마경> 사경도 매일 조금씩 하도록 한다. 아이들은 올해 한자자격 7급 시험도 준비하고 있다. 한자를 공부한 아이들은 학교 입학 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다. 학습능력보다 놀라운 것은 인성적인 측면이다. 불일성은 물론이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일이 습관화됐다. 아이들은 사경하고 <반야심경> 외우는 것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한다.

"사경을 하고 나면 치카치카한 것 보다 상쾌해지고, 극락세계에 간 것 같아요." (<반야심경>을 외우고 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져요." 앞으로 부모님한테 혼나거나 친구들과 싸우고 나면 <반야심경>을 외울 거예요. 마음이 편해질거거든요."

이상민 기자 kemichino@gmail.com

대장경에서 배운다⑤-어린이 불교

'경전 암송' 교육효과 기대 이상

불교경전을 읽고 이해하기란 어른도 쉽지 않다. 어린이에게 경전을 읽게 한다는 것은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대부분 쉽게 풀이해서 삼화가 들어간 불교관련 책을 읽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경전을 그대로 암송하는 방법을 전문가들은 권장한다. H. 클라르의 <어린이들에게 불교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How to teach Buddhism to children?) (각목 스님 옮김, 보리수)에는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진리의 눈이 떠져 있으며, 또 비록 지금 당장은 그 깊은 뜻을 모를지라도 장차 어른이 되어 삶의 바다를 표류할 때에 그들의 잠재 속에 남아 있는 빛나는 부처님 말씀들은 삶의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어린이 경전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독산대 동양사상연구소

것을 따라 읽지만 한다면 충분히 읽을 필요가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경전이 현대생활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접어두자. 경전은 삶의 원리와 시대적인 사건들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삶의 원리에서 본다면, 그것은 영원한 교훈으로 현대나 과거 등으로 구분될 수 없다.

교육 방법은 기회가 되는 대로 경전을 펼쳐 여러 번 읽게 하고 외우도록 하는 것이다. 읽기 시간과 진도는 자유롭게 정하며 경전을 읽는 시간은 혼란스럽지 않으면서 엄격한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어린이는 모방을 좋아 하는 점을 활용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혹은 주위사람들이 모두 경전을 읽는다면 어린이 역시 경전을 읽는데 흥미를 갖게 된다.

어린이를 위한 대표적인 경전에는 <자타카(Ataka, 本生經)>이다. 자타카에는 부처님이 이생에 태어나 나가기까지의 전생 이야기를 중점으로 재미와 함께 교훈과 지혜가 담겨있다. <자타카>는 AD2세기 중엽부터 4세기 초까지 인도에서 왕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서인 '판차탄트라'로 쓰이기도 했다. '판차탄트라'는 페르시아어 등 50여 개 언어로 번역돼 각 나라 설화문학에 영향을 끼쳐 이슬람교, 천일야화, 그림동화 등 세계전래동화의 뿌리가 되기도 했다.

고대 인도의 우화 구비설화를 중심으로 엮은 이야기 책 <백유경(百喻經)>은 편찬자 상가세나비구가 초창기에 일반 대중들에게 발췌돼 가치 있게 쓰이기 위해 엮었기 때문에 내용이 쉽다. 온갖 비유와 해학성이 넘치는 이야기들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와 입맛에 맞게 고치고 다듬어 출판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어릴 적 읽어 둔 경전 생활 속 지혜로 발현

경전 읽기는 1~13세 어린이들의 왕성한 기억력을 이용한 것이다. 반복해서 읽고 또 읽는 것은 어린이의 자연적인 성향이고 책을 외우는 것 또한 어린이의 특징 중 하나다.

어린이 경전 읽기 교재는 '읽을 만한 가치'라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고, 어렵고 어렵지 않은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어린 시기에 읽어둔 경전은 컴퓨터에 입력해둔 자료와 같이 성장하면서 혹은 성인이 된 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췌돼 가치 있게 쓰이기 위해 기억하는 사람은 이해력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상상력도 풍부해 진다고 말한다.

경전읽기는 어린이가 소리를 내어 읽거나 혹은 누군가 읽는

“아이들과의 시간이 내겐 수행”

청룡유치원 원장 정 명 스님



교계 안팎 어린이 행사에서 정명 스님을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스님은 교리경시대회, 자타카 영어암송대회, 연꽃노래잔치 등 어린이를 위한 무대가 펼쳐지는 곳에는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 등장한다. 특히 청룡유치원 어린이들이 각종 대회에 참석해 상을 휩쓰는 데에는 '생활이 곧 불교' 이계곡한 스님의 지도가 컸다.

이날 진행된 <반야심경> 암송대회는 스님이 청룡사 원장이 되고부터 6년간 열여왔다.

"경전을 외우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과 발표력을 증진시킨다. 또 기억력 증진, 손 근육의 활용을 유도하며 집중력 및 창의력을 강화시키고, 인지능력 향상, 언어교정에도 좋다."

다른 종교를 가진 학부모들도 더러 있지만, 암송을 통한 교육효과를 듣고 나면 부모님도 함께 아이와 <반야심경>을 공부하기도 한다. 사경도 마찬가지다. 스님은 아이들에게 한

자교육을 강조한다. 한자교육을 하면 한글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문해(文解)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바른 글씨는 곧 바른 마음이라는 지론으로 사경도 가르쳤다. 스님은 "경전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에도 애들은 획 하나 틀리지 않는다"며 "어린이의 높은 학습능력을 어른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명 스님은 "은연 중 배우고 습득한 경전은 제8아뢰야식에 각인된다. 자비사상이 깔려 있으면 절에 오지 않아도 평생 생명 존중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르고 암송하고, 쓰고는 있지만 불성을 가진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힘들어도 애들이랑 놀면 좋다.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기쁘고 수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천진불과 뛰어 노는 즐거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상민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운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해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고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용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풀뿔이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고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용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아가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2011년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시작 조심**

**다락울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묶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역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의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매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 45,000원 (사찰공급가격 별도상담)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